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 미니 프로젝트

자료제공 및 분석 : 이 순영(트렌드 전문가)



국가색채표준 이행 확산을 위한 국제 세미나
COLOR&DESIGN SEMINAR

<제 1 편>

페클레 파리 **FUTURE INSIGHT** (퓨처 인사이트)

CUBE® 카테고리:
Hedone, Humannature,
Technology, Fictio



Color&Design세미나©부산디자인센터

소개 글:

최근 몇 년 전부터 산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칼라의 중요성은 이제 칼라 활용단계의 중요성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개발된 한국색채표준을 제시하며 동시에 팬톤과 동일하게 색채 파렛트를 제작하는 일본 DIC, 트렌드 DNA 로 알려진 프랑스 파리 페클레(Peclers) 전문업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국가별 칼라 제안 기법과 적용방안이 부산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 Color&Design Seminar에서 소개되었다.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 'Color&Design' 국제세미나는 부산, 광주, 대구 디자인센터가 공동주최하고 각 산업계 전문가들과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디자인의 핵심요소로서 색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과 같은 색채연구의 선진국들은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 색채연구를 시작한지 1세기가 넘었고, 독자적인 색채표준을 개발하여 자국의 색채표준을 세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색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색채표준이 개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보 및 전문가 부족, 기존 해외 및 민간 개발 색채표준과의 호환성 문제, 공급 확산체계 미흡 등으로 수요자가 국가색채표준을 활용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는 광주디자인센터,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공동으로 'COLOR & DESIGN SEMINAR 2009'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번 세미나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 개발된 국가색채표준 활용을 지원하고, 색채표준 보급 및 확산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색채 전문가를 모시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관련 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차원높은 정보공유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가 디자인산업전반에 유용한 컬러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색채산업의 활성화에 기여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재명, 부산 디자인센터 원장-

본 Color&Design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 중 프랑스 파리 페클레(Peclers)가 소개한 'Future Insight'는 서울에 밀집된 산업계 고객(패션, 전자, 자동차, 코스메틱, 인테리어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해 년 1회 비공개로 소개하고 있는 미래예측동향 멤버십 세미나 내용을 디자인 트렌드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미니 프로젝트로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에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제외한 3개 지역디자인 센터는 대구, 광주, 부산에 설립되어 있으며 지역 디자인 산업 확산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 이번 국제 세미나 'Color & Design'은 지식경제부와 기술평가원이 후원하고 3개 지역디자인센터 대구디자인센터, 광주디자인센터, 부산디자인센터가 공동주관하는 국제 세미나 중 하나이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에서는 국가에서 기존에 개발한 국가색채표준을 널리 보급하여 산업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목적을 둔다.

국가색채표준 이행확산을 위한 국제 세미나
The International Seminar for Spreading Performance of Korean Standard Color

‘COLOR&DESIGN Seminar 2009’

주최: 부산디자인센터, 광주디자인센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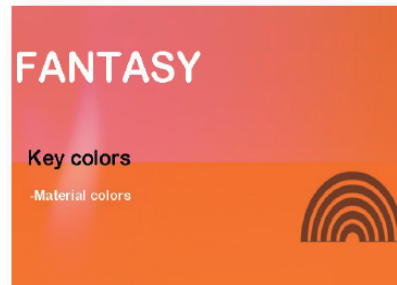
후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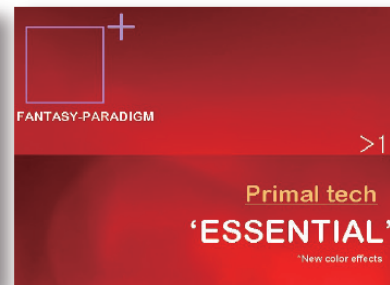
페클레 한국공식지사 대표 이순영 ©부산디자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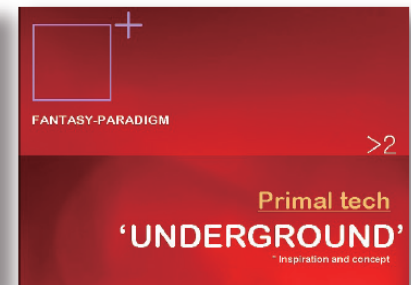
Future Insight 세미나 목차 > 테마-1. 환타지 패러다임(Fantasy Paradigm)



2010-2012를 예측하는 포케스팅 머테리얼 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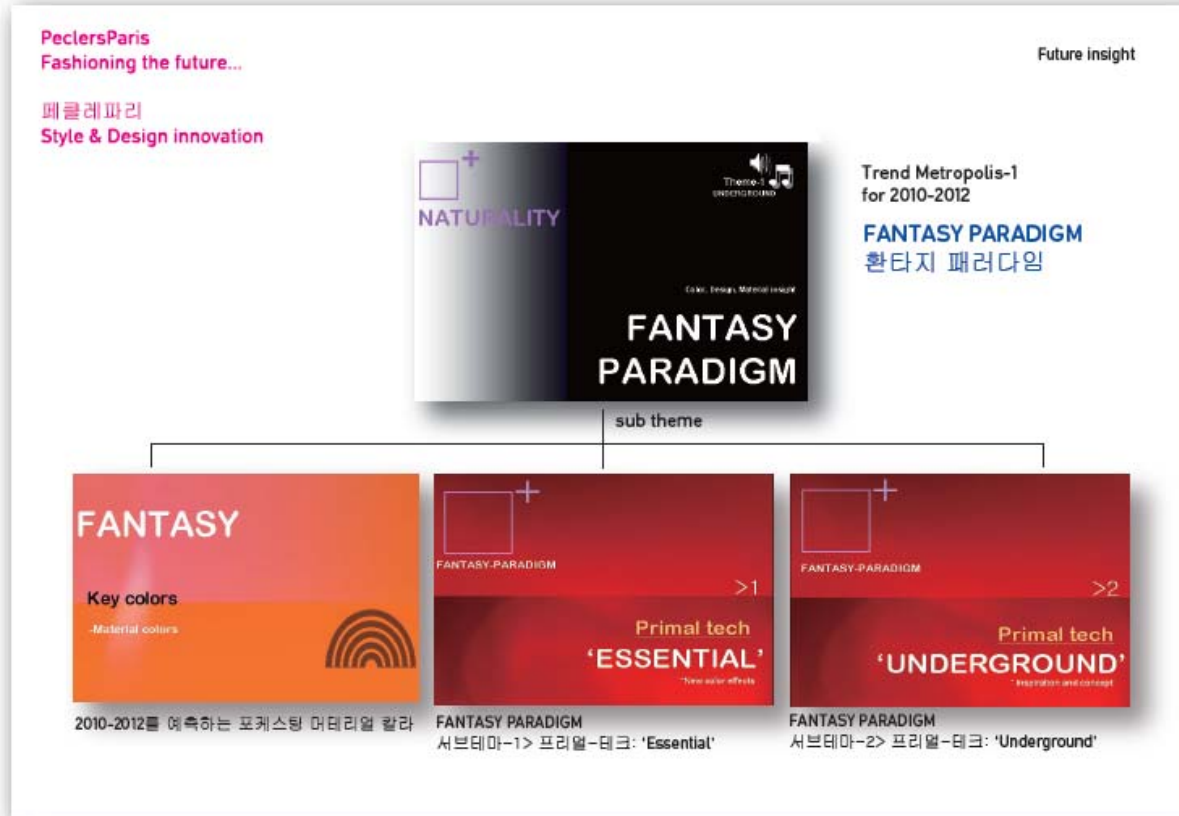
FANTASY PARADIGM
서브테마-1> 프리얼-테크: 'Essential'



FANTASY PARADIGM
서브테마-2> 프리얼-테크: 'Underground'

환타지 패러다임 Fantasy Paradigm:

피그먼트 칼라재질 주목하는 칼라와 머테리얼이 만나는 시점이 산업소재표면 처리로 나타난다. 러그하며 에쿠르한 원시적 표면감이 색감과 절충되어 패러독스한 환타지 감성'Dematerial' 키워드를 도출한다.



테마-1

환타지 패러다임 Fantasy Paradigm

• 환타지 패러다임 Fantasy Paradigm > Key Color

환타지 패러다임 키 칼라는 미래산업을 위해 예측되는 칼라와 재질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표면재질감과 관련 디자인 인스피레이션을 제시한다.

• 환타지 패러다임 Fantasy Paradigm > 서브테마-1. 프리멀-테크: 'Essential'

환타지 패러다임의 첫번째 서브테마 '프리멀 테크'는 원시적이고 고대적인 소재감 및 칼라가 강렬한 피그먼트 색감을 흡수, IT 및 하이테크 산업 전반에 흡수되는 지속가능성 재질 및 칼라를 다룬다.

• 환타지 패러다임 Fantasy Paradigm > 서브테마-2. 프리멀-테크: 'Underground'

언더그라운드 서브테마에서 소개하는 프리멀 테크 인스피레이션은 소재 자체가 전달하는 네추럴한 칼라감과 러그한 소재표면이 그대로 적용된 대표적 소재표면 키워드를 소개한다.

PeclersParis
Fashioning the future...

페클레파리
Style & Design innovation

Future insight


FANTASY

Key colors


-Material colors

FANTASY PARADIGM
> 중요 할라

sub color theme




Fantasy Paradigm



TEXTURE IMPACT
(EARTH, NATURE)

Primal Fantasy



Final Fantasy

Peclers Korea/페클레한국공식지사©All Right Reserved.2009

고고학적 무드 알케이즘(archaism)은 건축 및 소재표면처리를 통해 오래된 느낌과 산화된 색감을 동시에 연출한다. 인텐시브한 염료색감을 전달하는 레드와 피빛을 재현하는 탁한 색감으로 나타나며, 블루는 울트라 바이올렛과 믹스되어 선명한 발색 효과를 강조한다. 그밖에 그린은 카키 색감과 브라운이 믹스되어 자연산화감을 제시하며 옐로우는 골드-에이지 칼라를 재현하는 마닐라 옐로우 색감을 부각시킨다. 반면, 블랙은 텔루르와 같은 타르 색감과 질감을 강조하는 원석에서 도출되는 원시적 강렬함을 부각시키며, 화이트는 매트해 지는 표면효과를 최고 시즌 이슈로 다룬다.

산화감 중심으로 전개되는 에쿠르 재질이 럭셔리와 환타지를 동시에 어필하는 고고학적 알케이즘 무드로 승화되어 오크계열의 붉은 빛을 도는 브라운 계열이 중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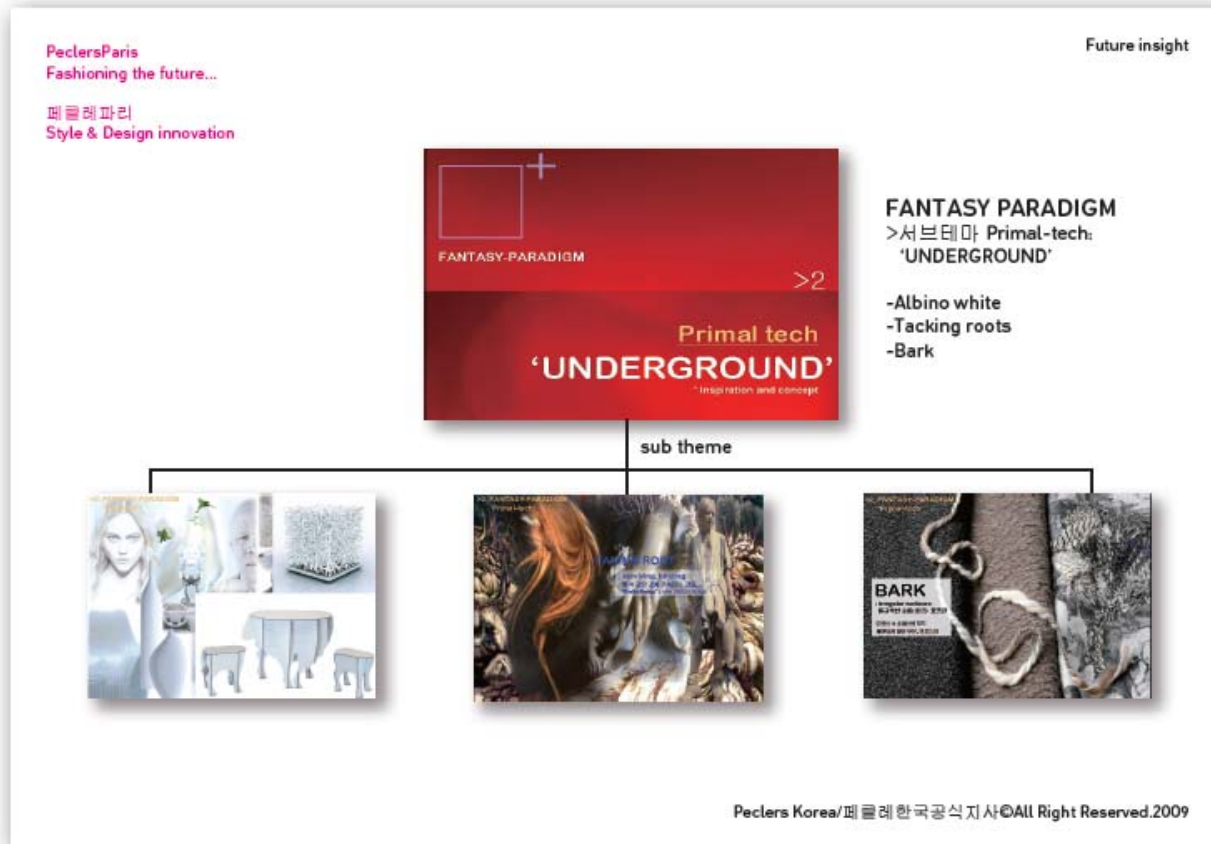
트렌드 포커스 (Material + colors= 'Dematerial Luxury')

***피그먼트 칼라 재질**

- 환타지 네추럴: 모던-심미주의와 럭셔리 의 절충
:알케이즘(Archaism)+퓨처리즘(Futurism)
- 동시대성 고고학: 바로크 블랙+아이스 사이보그
- 오가닉 재질감과 스무스 웨이프

***메탈릭 칼라 재질**

- Chronical age colors : 녹슨듯한 색감, 보르도 출현
- 텔루르 블랙 & 알비노 화이트 : 원석 칼라감 (titanium)
- 남루하고 오래된 표면처리를 통해 장식을 극대화 하는
Post vintage의 심미성



• 알비노 화이트 Albino White

백색증 환자를 말하는 알비노(Albino)는 창백한 화이트와 매트한 화이트 두 가지를 강조하는 새로운 매트 계열 화이트이다. 페이퍼와 우드, 펄프와 같은 러그한 네추럴 소재에서 출발하는 불투명한 cool white 계열이 주목된다.

• 땅속 깊은곳으로 부터.. Tacking Roots

땅 속 깊은 곳에서 뿜아 낸듯한 원시적인 텍스처어가 주목된다. 화려하기 보다는 멜랑고릭한 무드가 지배되는 Tacking roots 인스피레이션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심미성을 제시한다.

• 바크 Bark

나무 껍질 즉, 수피를 의미하는 표면재질감에 대한 해석으로 불규칙한 수피 텍스처어가 전달하는 럭셔리함을 소개한다.